서울 3개지부를 찾아서…

글/이상식(대한전기기사협회 홍보과)

우리 전기기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회원상호간의 조화와 협동속에 자율하는 단체가 되자는 취지아래 대한전기기사협회 서울 3개지부(남동, 남서, 북동)가 지난해 12월에 설립되었다. 그동안 지부가 없었던 관계로 회원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 왔으리라 생각된다.

하루 하루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하며 항상 회원을 위한 협회로서 새로 탄생한 서울 3개지부에 거는 기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1일과 12월 27일 많은 회원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속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서울 남동지부와 남서·북동지부를 찾아, 새로이 지부업무를 시작하여 회원들의 편의와 권익보호에 여념이 없는 3개지부의 지부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 보았다.

서울은 설비수용가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다. 타 지부보다는 재정이 빈약하나 앞으로 상당한 회원확보와 지부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많은 수용가를 회원으로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 회원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한다.

서울 남동·남서·북동지부는 무형의 형태에서 지부가 탄생된 만큼 지부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대의원 여러분의 지부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것에 지면을 통해 필자가 협회를 대신해 감사드린다.

협회가 발족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협회 위상정립의 대외 홍보활동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회원들간의 친목, 단합을 위해 여러 가지 당면 문제를

◀ 서울 북동지부 임직원 및 운영위원
(앞줄좌2 : 김홍구 지부장, 우2 : 권응득 회장,
우1 : 김성모 상근이사,
뒷줄좌1 : 김미숙 직원, 좌2 : 노건호 부지부장)

▲ 서울 남동지부장 및 운영위원과 함께한 필자(중앙)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단결할 필요성을 느끼며, 따라서 협회를 중심으로 전체회원이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가 분발해 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개인 사업의 이익을 버리고 공인으로서 봉사의 길을 걷고 있는 서울 3개 지부장의 설계를 들어본다.

계획된 도시도로망, 고급의 고전적인 문화시설 등을 이루고 있는 지역.

이원용 서울 남동지부(강남, 서초, 송파, 강동, 성동)장은 20년 전인 1971년도(회원번호 : 1319)에 협회와 인연을 맺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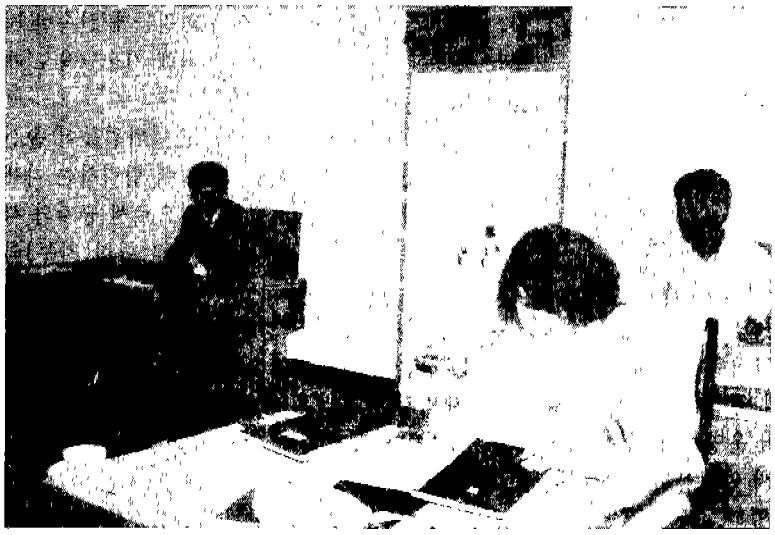
초창기 지부 설립의 어려움을 지역회원과 운영위원, 대의원의 협조로 지부 사무실의 운영비는 물론 자재도구 등을 각자의 주머니를 털어 운영하여 오는 어려움도 많았으며, 서로의 격려로써 일사불란하게 지부의 운영을 순조롭게 이끌어 왔었다. 李 지부장은 체계있는 운영조직기반을 정립, 철저한 회원가입에 힘쓸것이며 회원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부의 업무방안을 첫째, 회원중심으로 진단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업체 회원들과 유대강화에 힘쓸 것이며, 이를통해 지역구청 등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부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둘째, 지역단위별 모임을 활성화 시켜 신규회원 확보를 20% 이상으로 설정해 지부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부발전을 위해 지부 사무실을 회원간의 단합의 장으로 만들어 주어 건전한 풍토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다. 네째, 지부회보를 발간 지부회원들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자질향상을 위해 기술교육도 개최한다.

이상과 같이 남동지부는 지부 운영위원들이 솔선수범, 순수한 봉사자로서 협회발전에 협력하는 자세가 필자로 하여금 더욱더 협회직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게 하였으며 융화와 단결로 협회(지부)와 회원이 하나 되기를 강조하였다.

서울 남서지부(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구로, 관악)는 하늘의 관문이며 사랑방 구실을 하는 김포공항, 새벽같이 올라온 생선들이 서울의 식탁을 살찌우게 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한국의 맨하탄 여의도 등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서울 남서지부 조명섭(회원번호 : 종신 205) 지부장은 전기주임기술자 시절에 시작한 협회는 전기협회에 대한 관심이 적어 지면서부터 협회의 재탄생을 누구보다도 학수고대하여 왔다. 그는 "전기협회는 회원을 위한 협회가 아닌 회원위에 군림하는 협회가 됐던 것에 전기기사(회원)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고 첫마디를 열었다. 그리고 친목도모와 권익신장을 위해 회원들은 지난해 대한전기기사협회의 재 태동이 보이자 발벗고 나서서 협회의 재 탄생과 지부탄생을 돕는데 적극적인 투자와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남서지부사무실 전경 ▶
(좌 : 이순자 직원,
중 : 정수칠 부지부장,
우 : 조명섭 지부장)



◀ 서울 남동지부 사무실 전경
(좌 : 이원응 지부장,
중 : 유희선 직원,
우 : 김원복 운영위원)

趙 지부장은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이익을 회원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마음으로 각양의 사업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 회원들의 편의도모와 친절한 지부사무실 운영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우리 협회"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둘째, 지부 재정확보를 위해 지부내 특별회원(스폰서)을 가입시켜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홍보활동강화로 신규회원 30% 확보를 달성하고 각종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북동지부(동대문, 종로, 노원, 성북, 중랑, 도봉구)는 한약재와 양념시장으로 유명한 경동시장, 먹배골의 태릉, 등산객의 휴식처인 도봉산, 빽빽하게 아파트숲을 이룬 상계 APT단지, 보물 1호인 동대문을 구역으로 한 지부이다.

1977년도에 협회에 가입하였다는 김용구(회원번호 : 5973) 서울 북동지부장은 25년간 일선 현장에서 회

원간의 상호관계와 지부발전을 위해 동분서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지난 과정을 디딤돌로 하여 지부의 발전은 물론 협회의 발전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노건호(회원번호 : 5745) 서울 북동지부 부지부장은 종로구 관할 회원을 지역적으로 앞으로 창립될 북서지부로 편입될 것을 우려하며 장래의 북동지부 회원관리와 재정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울러, 아직까지는 다수의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가 있고나서 내가 존재한다는 소속감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고 덧붙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때 앞으로 회원과 협회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회 참여를 당부해 본다.

서울 3개지부는 금년도를 「지부정착의 해」로 정해 지역특성을 살려 굳게 뭉쳐 단결력으로 지부운영을 해나갈 것을 밝혔으며 지부특성에 맞게 지자제 형태의 협회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지부장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임원진(집행부), 회원모두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땀흘리고 있음을 볼 때 서울 3개지부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

휴게실

캔 슬(cancel)

계약의 취소나 해약의 뜻, 지금은 「캔슬하다」와 같이 주로 동사로 사용하나 어원은 라틴어의 cancelli(格子)라는 명사. 「格子」가 「解約」의 의미로 쓰이게 된데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옛날에는 종이가 몹시 귀중했다. 만일 도중에 잘못 쓰기라도 하면 지금처럼 그것을 구겨서 휴지통에 버린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냈다. 그래서 잘못 쓴 부분을 #의 格子표시로 지우고, 이어서 그 다음에 또 써 나갔다. 이 格子표시가 곧 Cancelli 이다.

피닉스(phoenix)

불사조, 그리스어의 Phoinix에서 온 말. 동양의 靈鳥가 봉황인데 대하여, 이것은 서양의 영조, 헤로도토스(Herodotos, BC *c 484~c 430*)의 『역사』에 의하면, 이집트의 피닉스(불사조)는 형태가 큰 독수리와 같으나 꼬리와 날개 모양이 다르고 또 그것이 赤·青·紫·金색으로 아름답게 빛난다고 했다. 물론 불사조란 전설의, 상상의 새겠지만, 전해지는 불사조는 수명이 대단히 길다. 장수끝에 죽음이 가까워 오면, 향내나는 나무가지를 모아 화장준비를 한다. 여기에 불을 붙인 다음 스스로 그 불속에 몸을 던져 죽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재속에서 새 피닉스가 생겨나서 날아간다. 이처럼 알을 낳아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사조는 불속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불사조라 한다고.